

광양시, 2021 스마트타운챌린지 준공식·협동조합 개소식 개최

금호동 일원 스마트서비스 6종 설치 완료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 금호동에 위치한 금호스마트그린협동조합 앞에서 '2021 광양시 스마트타운챌린지 조성사업' 준공식과 조합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광양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장, 조합이사장, 지역자생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금호동을 대상으로 추진한 스마트타운챌린지 조성사업의 성공

적인 준공을 한 뜻으로 축하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준공까지 시와 금호동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 박승용 금호동 입주자대표회장과 협동조합 설립에 많은 도움을 주신 노래영 프로에게 조합원과 금호동민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본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홍보 동영상도 상영됐다.

설치된 스마트서비스 6종은 스마트쓰레기통 48대, 폐지수거시스템 12대, 스마트딥터 11개소(협동조합 사무실 1개소 포함), 공유모빌리티(전기자전거) 100대, 대형폐기물 시스템 고도화와 전체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에코 플랫폼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 준공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합원에게는 폐지, 페트병, 유리병(맥주, 소주) 재활용 시 포인트가 지급되며, 전기자전거 및 대형

폐기물 결제 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2021 광양시 스마트타운챌린지 조성사업 준공을 위해 노력해준 조합이사장을 비롯한 금호동민, 사업관계자 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한 동네 금호동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빈 기자

'명품 곡성 배', 미국서 큰 인기

81톤 수출, 내년 2월까지 수출 계획

곡성군 신선 농산물 중 최대 수출 품목인 명품 곡성 배가 미국 수출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곡성군수를 비롯한 곡성군 관계자들은 곡성군배농조합법인 공동 선별장을 방문했다. 명품 곡성 배의 수출 현장을 살피고 지역 수출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곡성군에서는 8월 초부터 원황, 황금 품종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81.6톤 약 3억 2천 5백만 원 상당의 곡성 명품 배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추석 이후 2023년 2월까지의 신고 품종을 수출할 계획이다.

수출용 배는 곡성군배농조합법인(대표 정복기) 회원 농가에서 재배한다. 전체 회원 농가 중 25여 농가가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안전하고 깨끗한 GAP 인증 시설을 갖추으로써 효율적인 선과 시설 운

영과 공동 선별을 통해 높은 품질 경쟁력과 안정된 유통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배 수출 전문단지 지정 및 최우수 수출 단지 인증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바이어들에게 꾸준히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장을 찾은 곡성군 이상철 군수는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통한 내수 가격 안정 및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농가들에게 약속했다.

곡성군은 명품 배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물류비,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수출 요건에 맞는 해외 인증 취득, 수출 포장재 디자인 개발, 수출용 소모품 자체 구입비 지원 등 적극 행정으로 지역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심선섭 기자

순천시, 농산물 가공 창업 기초반 교육 개강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농산물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과 시민 33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 기초반(12기)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당초 25명 모집 예정이었으나 33명(농업인 27명, 비농업인 6명)이 지원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기가 뜨거웠다.

교육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9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4시간씩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식품가공 기술 △식품 트렌드 △유통 및 농식품 원가 관리 △습식 제조 실습 및 건조 실습 △전자상거래 실무 등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수강생들은 기초반 교육을 이수하면 차기 과정인 가공창업 분과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공 창업 교육 이외에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 개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가공 창업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가공센터를 준공(2017년)한 이래 지금까지 28개 과정에 699명의 가공 교육생을 배출해 왔다. /이유빈 기자



구례군은 최근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이 서우시 동작구 수해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역시 지난 2020년 8월 8일 구례읍 일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으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수해피해 봉사활동으로 情 나눠

구례군은 최근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이 서우시 동작구 수해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동작구에 내렸던 시간당 강수량은 141.5mm로 기상 관측 사상 최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피해를 냈다.

구례군 역시 지난 2020년 8월 8일

구례읍 일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으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순호 구례군수와 직원 50여 명은 오전 6시에 구례군청에서 출발해 현장에 도착 후 동작구 김동일 사당1동장으로부터 피해 상황과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적극적인 모습으로 복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침수된 주택 및 상가를 중심으로 오염된 폐기물을 건져내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생수 1천75박스과 라면 120박스를 함께 지원했으며, 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협의회(대표 오성수)에서도 라면 130박스 및 생수 180박스를 추가 지원했다. /심선섭 기자

여수시, 추석명절 햅쌀용 올해 첫 벼 수확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최근 소라면 복산리 친환경농업재배단지에서 올해 첫 벼 수확을 시작했다. 수확은 여수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인 서일석씨 논에서 이뤄졌다.

이날 수확한 벼는 일본 쌀 품종인 고시히카리를 대체하고자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조생종인 '해들품종'이다. '해들품종'은 수확량을 떨어뜨리는 쓰러짐과 도열병, 흰잎마름병에 강하며 밥맛도 좋아 농업인 및 소비자 평가단의 블라인드 평가에서 우수 품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다만, 주 재배적응 지역이 경기, 강원, 충북 등 중부 평야지대로 남부 해안지인 여수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품종이다.

현재 여수시의 추석햅쌀용 조생종(일찍 개화하고 일찍 수확하는 품종) 재배면적은 50ha로 국산품종인

조평품종이 38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조기재배용 벼는 3월 초·중순경 모판에 범씨를 파종해 25일 정도 기른 후 4월 중순 논에 이앙하고 8월 중순부터 수확해 추석햅쌀용으로 판매된다.

시 관계자는 "일본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지역 환경에 적응성이 높고 밥맛이 우수한 조기재배용 국산 품종을 매년 시험재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농 쌀 하이아미 재배단지도 연간 100ha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시 유기농 쌀 브랜드로 특화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이아미 품종은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기능성 쌀로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최고의 밥맛 품종이다"고 전했다. /이유빈 기자